



03

COWAY

IR Webzine
2017. March

- CEO in Media
- Market Review
- Coway News

본 자료는 매일 주식시장 현황, 코웨이의 주가 및 관련 데이터, 재무현황 및 영업실적, 기타 IR관련 주요 이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주 및 투자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way

CEO in Media

IR WEBZINE
2017. March

03

coway

아시아경제

'4개국 출장길' 강행군...이해선 코웨이 대표

2017-03-28

파이낸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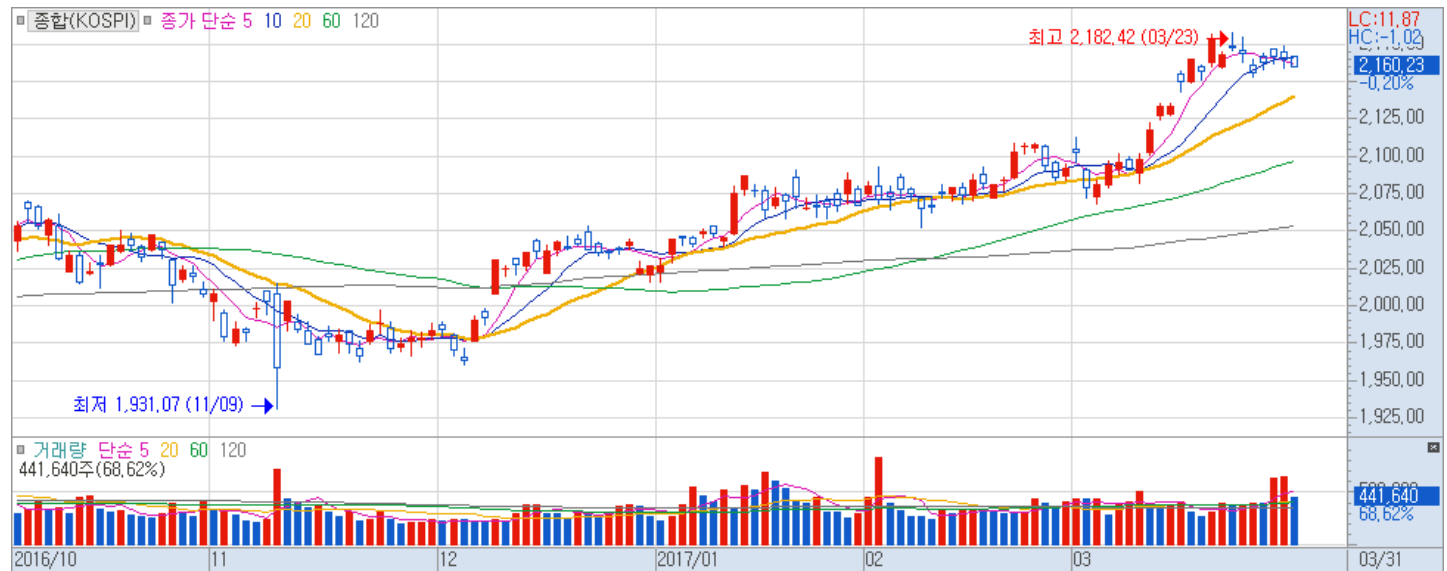
이해선 코웨이 대표 "요즘은 코니 알렉사와 24시간 함께 합니다" 2017-03-16

Market Review

Stock Market

IR WEBZINE
2017. March

03



2017년 3월 KOSPI는 전월 대비 3.28% 상승한 2,160.23포인트로 마감하며 4개월 연속 상승세 시현. 기술적 분석 면에서도 거래량 증가와 함께 주가와 이동평균선 모두 정배열 형태를 갖추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는 과정. 투자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며 지난 2011년의 역사상 최고치 (장중 2,231.47포인트)에 근접.

이와 같은 강세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출경기 회복 소식과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함께 어우러지며 경기민감주를 중심으로 선순환이 이어졌기 때문. 펀드환매로 인한 기관투자자의 매도 역시 대기 매수세에 의해 무난하게 소화되며 시장에너지가 응집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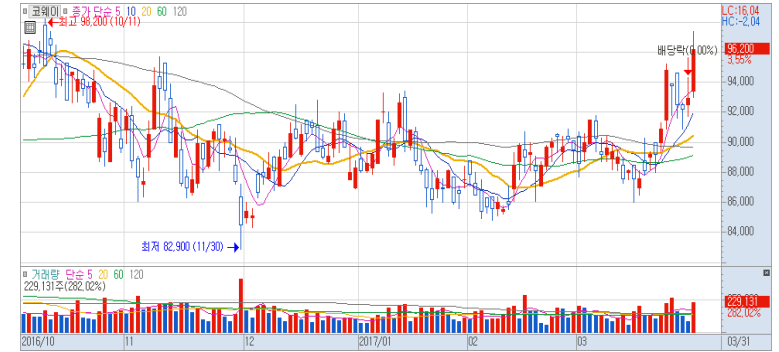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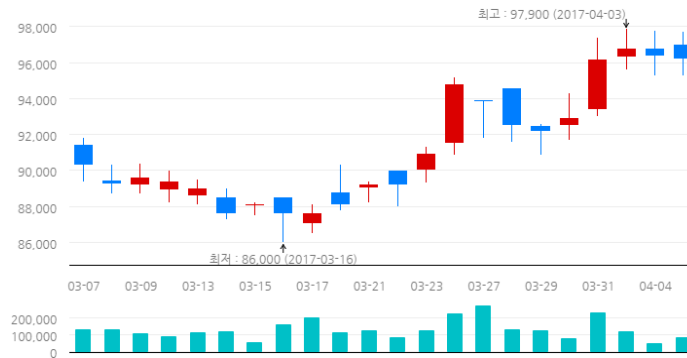
4월 국내증시는 시장 전반에 낙관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 일시적 조정이 있어도 그 폭은 제한적이고, 상반기 중 역사적 고점을 넘어 장기 박스권을 탈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 반면, 4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 또는 일일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담도 상존.

Market Review

Stock Price

IR WEBZINE
2017. March

03



구분	코웨이상승율			종합지수 상승율	KOSPI200 상승율
	주가	종합지수대비	KOSPI200대비		
5 Days	1.48	1.88	2.07	-0.40	-0.59
20 Days	6.89	2.97	2.86	3.92	4.03
60 Days	8.58	2.89	1.86	5.69	6.72

2017년 3월 코웨이의 주가는 전월 말 대비 7.49% 상승한 96,200원으로 마감.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지난 3개월여 동안 박스권 저항선이었던 94,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며 반등 모멘텀을 확보한 모습. 중장기 이동평균선들도 상향 반전하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증가.

코웨이는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고객 신뢰'에 두고 있으며, 매년 주주 친화적인 배당정책과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가치주로서의 위상을 구축. 2017년에도 1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700억 원 규모의 소각 계획을 발표. 또한, 2017년 1분기부터 내수 업종 최초로 분기 배당을 실시하기로 함. 이와 더불어, 향후 기존사업의 정상화, 국내외 신제품 출시, 해외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성장성 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2017년 3월 한 달간 당사의 외국인 보유 주식수는 전월 대비 356,071주 (0.9%) 증가하여 3월말 현재 53.84%의 지분율을 기록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은 동 기간 동안 152,674주의 순매도를 기록하였음.

<p>2017/3/31 현재 41,126,699주 보유 (53.84%)</p>	<p>3월 주가 상승률 7.49%</p>	<p>3월 외국인 비중 356,071주 (0.9%)</p>	<p>3월 기관 순매수 -152,674주</p>
---	----------------------------	--	--------------------------------

Market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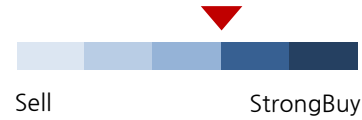
Stock Price

IR WEBZINE
2017. M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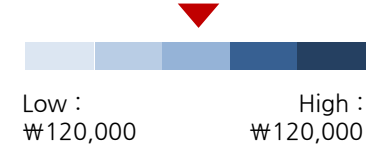
03

- Strong Buy 0
- Buy 1
- Hold 0
- Underperform 0
- Sell 0

Average Ratings



Average Target Price = ₩120,000



2017-3-29 | IBK투자증권 | 목표주가 : 120,000 | BUY

[FULL REPORT VIEW](#)

분기배당과 2분기 정상화로 모멘텀 회복 중

2017년 개별기준 IBK 추정치 매출액 24,285억원(+10.2%), 영업이익 4,916억원(+33.3%), 순이익 3,633억원(+31.9%)을 유지한다. 코웨이가 제시하는 2017년 가이드스인 매출액 24,300억원, 영업이익 5,000억원을 ...

코웨이, 인터브랜드 국내 50대 브랜드 3년 연속 선정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 www.coway.co.kr)가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사인 인터브랜드가 선정하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에서 3년 연속 50대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코웨이는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에서 2015년 38위를 시작으로 2016년 32위, 올해는 31위를 기록하며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리테일 분야에서는 18위 롯데쇼핑, 27위 이마트에 이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코웨이의 브랜드 가치는 작년 대비 3.6% 상승한 6,750억 원을 기록했다.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는 '재무 분석', '브랜드의 역할력 분석', '브랜드 강도 분석'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인터브랜드의 자체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대상자는 포춘(Fortune)이 2016년에 선정한 국내 500대 기업이다.

1974년 설립된 인터브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 산정의 국제 표준인 ISO 10668을 업계 최초로 인증받는 등 브랜드 가치 평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한편, 코웨이는 지난해 정치, 사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코웨이 정수기', '코웨이 공기청정기', '코웨이 비데' 등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2조 3,763억 원(K-IFRS 연결기준)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코웨이는 모든 경영활동의 최우선 가치를 '코웨이 트러스트(Coway Trust)'에 두고, 기업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박용주 코웨이 마케팅본부장은 "코웨이는 궁극적으로 고객의 삶 전반을 케어하는 브랜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핵심 역량인 '케어'를 기반으로 깨끗한 물과 공기 등을 제공해 고객들의 삶을 케어하고, 더욱 신뢰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코웨이, 릴레이 '지역 하천 가꾸기' 봉사 진행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 www.coway.co.kr)가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공장이 위치한 유구와 포천, 인천에서 '지역 하천 가꾸기' 봉사활동을 릴레이로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코웨이는 지난 13일 유구의 유구천을 시작으로 14일 포천의 독곡마을 도랑, 22일 인천의 승기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릴레이로 진행된 '지역 하천 가꾸기'에는 코웨이 임직원 약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천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천 근방 시설물을 점검하는 활동을 펼쳤다.

유구천 정화활동에 나선 최유리나 코웨이 환경경영팀 사원은 "일하고 있는 지역의 하천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했다"며 "국내를 대표하는 물기업 코웨이의 물 사랑 정신이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는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을 기념해 '지역 하천 가꾸기' 봉사 외에도 깨끗한 물 음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3월의 워터 크리스마스 캠페인', 물 관련 영화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되돌아보는 '채널CGV 물 관련 영화 방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코웨이, 채널CGV와 손잡고 물 관련 영화 방영

- '세계 물의 날' 맞아 채널CGV에 물 관련 영화 7편 특별 편성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 www.coway.co.kr)가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채널CGV와 함께 물 관련 영화를 특별 편성 및 방영한다.

이번 특별 편성은 '깨끗한 물 코웨이와 함께 하는 특별한 일주일'이라는 컨셉으로 채널CGV와 함께 하며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했다. 채널CGV에서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루 1편씩 총 7편의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영화는 대기업을 물오염 사건을 다룬 감동 실화 '에린 브로코비치'와 바다를 닦은 두 남자의 뜨거운 경쟁과 우정을 그린 '그랑블루' 등 깨끗한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흥행작들로 편성했다.

박용주 코웨이 마케팅본부장은 "국내 대표 물기업의 책임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의 날과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물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국내를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물기업으로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물의 날(매년 3월 22일)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UN이 제정 및 선포한 날이다.

코웨이, '깨끗한 물' 24시간 모니터링 하는 마이한뺨 정수기 loCare 출시

- 정수 성능 · 물 사용량 · 정상 작동 여부 등 실시간 모니터링 통한 안심 케어 강화
- 물 사용량에 따른 필터 교체 서비스 맞춤 제공
- 스스로 순환 살균 · 순환 배수 기능 탑재로 제품 위생 업그레이드
- 실버 케어 기능 탑재, 48시간 이상 정수기 미 사용 시 알림 메시지 전송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 www.coway.co.kr)는 고객들이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 성능과 물 사용량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정수기 내부를 스스로 살균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코웨이 마이한뺨 정수기 loCare CHP-482L'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코웨이 마이한뺨 정수기 loCare CHP-482L의 가장 큰 특징은 깨끗한 물을 위해 △ 정수 성능 △ 물 사용량 △ 정상 작동 여부를 스마트 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기능과 순환 살균 및 순환 배수 등의 혁신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는 점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부모님을 위한 실버 세대 맞춤 케어 기능도 더해졌다.

신제품 CHP-482L은 사물인터넷을 연계해 RO 멤브레인 필터 시스템의 정수 성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성능 이상 감지 시 제품을 통한 알람 및 콜센터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스마트 시스템을 탑재해 언제나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제공해준다.

이번 제품에 탑재된 RO 멤브레인 필터 시스템은 차별화된 소재와 구조를 적용한 머리카락의 수십만 분의 1 수준의 물질까지 제거하는 고성능 필터로, 0.4 나노미터 수준의 초미세 황산이온물질과 방사성 물질인 라듐 226 · 228은 물론 총대장균군과 노로바이러스까지 제거한다.

또한 마이한뺨 정수기 loCare CHP-482L은 물 사용량에 따른 맞춤형 필터 교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물 사용량이 많은 경우 서비스 시기를 앞당겨 필터를 교체해준다.

마이한뺨 정수기 loCare CHP-482L은 제품 스스로 순환살균 및 순환배수를 진행하는 스마트한 제품이다. 이 정수기는 S마크를 받은 전기분해 살균수로 수조, 유로, 파우셋 등 정수기 속 물이 닿는 부분을 스스로 살균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동안 물 사용량이 적으면 정수기 수조에 담겨 있던 물을 배출하고 신선한 물을 채워주는 스스로 순환배수 기능을 탑재했다.

또한 CHP-482L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 케어 기능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48시간 이상 정수기 사용이 없으면 등록된 사용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해주는 기능을 담았다.

신제품 CHP-482L은 사용자 편의성과 에너지효율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이 제품은 3단 맞춤 온수(45°C · 70°C · 85°C)시스템을 적용해 상황과 용도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순간 온수 시스템과 인버터 냉수 시스템 적용으로 사용 전기량을 최소화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획득한 제품이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는 "깨끗한 물이라는 정수기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며 최첨단 기술을 집약해 만든 프리미엄 혁신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고성능 RO멤브레인 필터에 사물인터넷 연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까지 더해져 차원이 다른 안심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코웨이 3월의 워터 크리스마스 “깨끗함만 드리겠습니다”

- 코웨이, 청계광장에 높이 2.4m 대형 워터 트리 제작
- 코웨이 직원들 파란색 산타 복장 입고, '세계 물의 날' 기념 행사 펼쳐



코웨이(대표 이해선, www.coway.co.kr)가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14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깨끗한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3월의 워터 크리스마스' 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3월의 워터 크리스마스'는 시민들에게 물 음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데 앞장 서겠다는 코웨이의 다짐을 알리는 행사이다.

코웨이는 이날 행사에서 깨끗한 물에 대한 의지를 담은 '클린 워터 트리'를 만들어 전시했다. 워터 트리는 코웨이 물병 약 350개를 활용했으며, 2.4m 높이의 대형 크기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파란색 산타복장을 입은 코웨이 직원들이 코웨이 물병과 물 정보 카드를 담은 선물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깜짝 이벤트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물기업 코웨이는 2017년 경영방침인 '코웨이 트러스트(Coway Trust)'를 바탕으로 물과 관련한 다양한 신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코웨이 임직원 기부 모아 아프리카에 두 번째 희망학교 선물

- 임직원 기부금과 회사 매칭 후원금으로 두 번째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립



라이프케어기업 코웨이(대표 이해선, www.coway.co.kr)는 임직원들의 기부금을 모아 아프리카 말라위 카츨와 지역에 ‘코웨이 카츨와 희망학교’를 건립하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파란 빛 미래를 선사했다고 6일 전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3년부터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임직원 정기기부 사회공헌프로그램인 ‘한뼘 나눔’을 실시하고 있다. 한뼘 나눔은 임직원들이 매월 1,000원의 금액을 기부하고 동일한 금액만큼 회사에서 후원금을 출연하는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아프리카 학교 건립·유기 아동 후원·물 부족 국가 식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건립된 ‘코웨이 카츨와 희망학교’는 2015년부터 임직원 및 회사가 기부한 금액 중 일부인 약 7천만원 상당의 기금으로 지어졌으며 지난 해 4월에 시작해 지난 2월에 완공식을 진행했다. 아프리카 남동부에 위치한 말라위는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빈곤 지역 중에 하나다.

이번 ‘코웨이 카츨와 희망학교’는 2014년에 건립된 아프리카 마웨판데 투마이니 여자기숙 고등학교에 이어 코웨이가 아프리카에 지원하는 두 번째 희망학교이기도 하다.

코웨이는 학교 건물과 함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 기자재도 기부했다. 또한 코웨이는 희망학교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분기 별 운영위원회 모임 지원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Fostala Gama() 코웨이 카츨와 희망학교 위원회장은 “그 동안 교실이 부족해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나무 밑에서 공부를 하고 화장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에 이번 학교 건물은 교육뿐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꼭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이번 희망학교로 인해 교육환경이 개선되어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 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선 코웨이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모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앞으로도 회사 핵심역량과 노하우를 접목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쳐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